

깜깜한 밤의 그림자

충북 보은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길만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이분에 얹힌 사연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기에 그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무례를 염려하고 이 지면을 빌어 당사자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이하 '이분'이라 칭합니다). 이분은 일반인이 평생에 한 번을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산삼을 놀랍게도 지난 3년 동안 100여 뿌리를 쫓다고 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산삼을 어디에도 팔지 않고 오로지 마을 어르신께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산삼을 드신 어르신이 이로 인하여 건강을 되찾고, 설령 건강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산삼으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위 모든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녀 빠진 짓이라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놀려댔지만 이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욱 아낌없이 산삼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친한 친구들이 이분을 붙잡고 그저 소원이니 한 뿌리만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고민 고민 끝에 산삼 한 뿌리를 술에 담가 이를 친구 여럿이 한 잔씩 나누어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은 이분에게 이중에 한 뿌리라도 자신을 위해서 먹을 수는 없었느냐고 따지듯 물었지만,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었다고, 정확히는 먹지 않아도 되었다고 답변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집배할 때마다 마을 어르신이 자신에게 건네주신 커피 한 잔과 건강드링크 한 병이 산삼보다 더 큰 약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이분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뿌리를 내다 팔았다면 일확천금을 손에 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또 다시 이분은 자신은 지금 우체국에서 월급이 나오고 있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과하게만 쓰지 않으면 다달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합니다.

이분은 산삼을 캐면서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산삼을 나누어주겠다고 생각하고 산에 오르면 그날따라 산삼이 눈에 잘 띄었고, 산삼을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 많은 산삼이, 한걸음 더 나아가 아프신 마을 어르신을 생각하면 더더욱 많은 산삼이 이분의 눈에 비쳤다고 합니다. 아프신 어른들을 생각했던 어떤 날은 한꺼번에 12뿌리의 산삼을 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지나는 사람 그 누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작정 캔 산삼 한 뿌리를 드렸더니 너무도 좋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 또한 더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산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선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우편집배원 생활을 하면서 우편물 배달은 기본이고,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각종 생필품 심부름에, 공과금 납부에, 손과 발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한파에 쓰러진 어르신을 구조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선행이 세상에 알려져 세상이 이분에게 그 보답으로 선사한 문화대상 시상금 또한 고향 보은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모조리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불러보기에 보은 우체국 집배원 길만영씨입니다.

크리스천 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사명으로서 이웃사랑을 올곧게 실천한 우리의 신앙적 표상이자 모범으로 여겨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여기서 재차 불러보고자 합니다. 산삼나르미 길만영.

화제를 바꿔서, 필자가 사는 동네 인근에 심한 분란을 겪고 있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대형교회입니다. 분란의 이유는 신도 수 만 명을 목표로 수백억의 건축헌금을 약정하여 예배당신축에 임하겠다는 교회목사님의 예상치 못한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한편에서는 수백억을 들여 교회를 신축하는 것보다 이를 10개로 쪼개어 지역 인근사방에 지교회(支教會)를 건립하는 것이 낫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커져가는 본교회의 교세를 바로 보아 가일층 교회역량을 배가하여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며 책상을 치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다가 끝내는 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적으로 듣고 보지 못한 까닭에 숨겨진 사실관계를 속속들이 파악하진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당 신축에 의한 분란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소위 기여는 명목상 기치(旗幟)에 불과하고 초대형교회로의 발돋움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꼭 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자의 주장을 앞에 놓고 어느 편을 드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한편의 교회에서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값비싼 외제차에 전담 기사를 대동하고 그것도 외부 부흥회나 설교에 임할 때면 어김없이 수행비서(경호원)를 붙이고 다닌다는 사실이 비화되어 끝내는 교회분열의 극단까지 치닫는 형국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영역(靈域)에 왈가불가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옳고 그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묵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일각에서는 청빈하고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할 목사가 제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뒷받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사가 교회와 인근각지의 비난의 빌미가 되고 있다면 당장에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고 끝내는 이것이 교회분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주장을 앞에 놓고 어느 편을 드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한 교회의 목사님은 분기에 한 두 번씩 해외선교 차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그것도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부흥회나 설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출타 중에 공석이 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는 부교역자가 번갈아 가며 도맡을 수밖에 없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사건이 비화된 것은 그간에 수차례의 항공편 이용에서 쌓아둔 항공마일리지로 경비를 대신했으면서 그럼에도 이를 감추고 되레 지불된 적도 없는 비행기 샅을 때마다 교회에 청구하여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편의 주장은 목사님 예우차원에서 이는

목사님의 임의처분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를 비운 것도 모자라 빠듯한 교회재정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선교에 막대한 교회비용을 투입한 것은 응당 잘못된 처사로 보아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위 당회는 쪼개지고 제직회는 분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주장을 앞에 놓고 어느 편을 드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한 교회에서는 교회헌금의 명목을 임의로 뒤바꿔 이를 소위 예비비로 편성해 두고 본교회 목사님의 판단아래 수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사모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른바 투자신탁)에 투자하였습니다. 물론 투자에 따른 일부의 수익이 있어 그나마 교회재정을 축내지는 않았지만, 재정담당 장로님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이 교회에 알려져 교회분위기가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 당회는 재정장로를 교회분열을 획책한 주범으로 몰아 출교처분을 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재정장로는 당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사회법에 호소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는 건잡을 수 없는 분열의 길로 치닫고야 말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일은 당회에서 거론하여 적절히 대처했어도 될 일이었는데 굳이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들춰 보임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것은 결코 목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를 감싸고 보듬어야 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이득을 편취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목회자의 사명과 직분을 고려할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의 주장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다가 끝내 교회는 두 개로 쪼개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주장을 앞에 놓고 어느 편을 드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다른 한 교회에서는 당회결의에 따라 담임목사님을 보좌하기 위하여 한 분의 부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목사님은 부임한 이후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교회신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지대한 유익을 끼쳤습니다. 일례로 한산하였던 새벽예배에 불을 놓아 주일예배에 필적할 정도로 온 교인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매일 같이 새벽시간에는 교회인근 구석구석을 말 그대로 주차장으로 변모케 하였습니다. 또한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야 교회 부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다채롭고 화려하게 구상하여 이윽고 교회의 교육관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당회장으로서 담임목사님은 영문도 알 수 없이 독단적으로 부목사를 해임하기에 이르고 이에 일부신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담임목사에게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교인 일부는 부목사 또한 언제까지 부목사일 수는 없고 이제는 담임목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담임목사의 편을 들었고, 다른 일부는 담임목사의 정년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의 공로를 보아 후임 담임목사로 천거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시각에서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뜻대로 교회에서 해임되어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일로 교회는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결과 부목사가 부임하기 이전보다 더욱 쪼그라든 교회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주장을 앞에 놓고 어느 편을 드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필자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례들은 앞서 명백히 되짚어 두었던 것처럼 허구의 것이 아니라 실상 그대로입니다. 필자의 양심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에 필자가 이 지면에서 논하고자 하는 핵심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치부를 일일이 드러내어 작금의 위태한 형국에 불 기름을 끼얹고자 하는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분열의 현장을 낚낱이 고발하여 마치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맞닥뜨려진 총체적 위기로 보아 위기의식을 더욱 부추기고자 함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핵심은 어떠한 심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곧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하 구약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 이유를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장의 배경으로서 민수기 16장은 시나이반도를 유랑하던 시절 이스라엘의 반역(反逆)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반역의 장본인은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레위지파 중에 고탓(Kohath)의 자손 고라(Korah)와 르우벤지파의 다단(Dathan), 아비람(Abiram), 온[On, 발루(Pallu)의 아들 엘리압(Eliab)]이라고 보는 것이 전후 문맥상 옳을 것 같다. 민 26:08-09]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당(黨)을 짓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적(반역)한 이유는, 대제사장 아론의 지위가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높다는 것과(고라의 주장), 당초 가나안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에 두고 있었습니다(다단, 아비람 등의 주장).

당시 고라는 자신의 반역이유를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곧 고라는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들인데, 유독 모세와 아론이 머리 위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러기에 자신 또한 레위지파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자신에게도 걸맞은 직위(대제사장)를 요구하였습니다. 고라의 속내는 모세와 아론처럼 자신도 못 이스라엘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것도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을 죽게 내버려 두었냐는 것에 반역의 이유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어 이를 온 회중 앞에 공공연히 적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라의 반역과 다단·아비람의 반역은 취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머리꼭대기로서 제사장직에 욕심을 품고 반역을 도모하였고, 다단 등은 가나안의 입성이 좌절된 것에 기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불만은 모두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같은 반역모의(反逆謀議)를 이스라엘의 남쪽 진영 어느 후미진 은밀한 곳에 모여 작당하면서 서로가 연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은 그들의 심사는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로부터 존경을 받고 떠받들음을 받을 수 있는 높다란 지위에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보다 더욱 교활하고 패악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고라는 단순히 자신도 이스라엘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했던 끝 모를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이 같은 권력욕에 덧붙여 모세와 아론을 빗대어 하나님의 처사에 반발을 품고 이에 강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불러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단순했던 고라는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일이야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앞에 섰고, 그보다 교활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는 달리 모세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제사장직에 대한 권력욕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곤 나답(Nadab)과 아비후(Abihu)]이 장막의 거룩한 불을 잘못 다루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즉시 불에 타 죽은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레 10장을 참조할 것입니다. 이하 후술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내심 그들 생명을 보전할 목적으로 모세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과 연합한 고라와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음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는 이를 모세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다단과 아비람의 속내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보다도 더욱 교활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민 16:12)

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의 패악함을 되짚어 보면, 그들의 교활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저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지 않았다고 적시하면서, 나아가 왜 가나안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냐고 대들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알아서 저들에게 당연히 바쳐야만 하는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민 16:14)

그간에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獻物)은 가나안을 저들의 소유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한낱 재물(財物)로서 흥정의 대가였습니다. 곧 하나님께 자기들 소유의 재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가나안을 자신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은 너무도 명명백백합니다.

모세는 우선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250명에게 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향로(香爐)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온 이스라엘에게 고라·다단·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윽고 모세는 온 회중을 향하여,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있는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음부(陰府, 앞서 본 대로 ‘스올’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스올은 삶에서

분리된 세계로 지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곳임을 덧붙여드립니다)에 빠지게 하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로 똑똑히 보아 알게 될 것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라와 그의 종들은 여지없이 갈라진 땅속으로 묻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고라를 추종하였던 핵심당원 250명은 그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에서 나온 하나님의 불로 모두 태워지고야마는 처절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고라의 아들들은 천만다행으로 그들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들의 자손들은 후일 다윗시대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지금으로 보아 찬양대)들이 되기에 이릅니다(대하 20:19).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고라를 추종한 250명이 손에 들었던 향로를 녹여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에 이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추상같은 증표로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곧 고라당과 같은 또 다른 반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추상같은 상징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만약 고라와 그들의 무리가 이스라엘을 일깨워 온 회중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연후에 그들이 가나안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진군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자원하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다면 모세의 청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고라당의 자원과 결연한 다짐을 눈앞에서 보셨다면 어떻게 섭리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고라당 반역의 괴수는 고라도

다단도 아비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는 디름 아닌 옛 뱀이자 마귀라고도 한 루피퍼, 곧 사탄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본향(本郷)이 스올이라는 것입니다. 고라당의 결말은 이러했고 사탄의 종말은 저러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민 16:32-33)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찢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그 대가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져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것도 다행일 것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로서 죽음이란 음부에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실상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 나를 긍휼히 여기사 ...”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눅 16:23-24)

음부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고라당의 당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 음부에 보냈는지 알고는 있을까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 셈입니다.

참고로 본장의 화제에 결부하여 여기서 잠깐 나답(Nadab)과 아비후(Abihu)의 이야기를 들춰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라처럼 자기의 이름을 돋보이고자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어진 책임을 말 그대로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책임(의무)으로 앞세워 두고 있다기보다, 되레 이를 자기의 명예로 변용하여 한갓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수단으로 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의 존엄과 권능은 뒷전에 두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앞세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쉽게 망각하게 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도 두시지 않고 오직 죽임으로 응징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된 희생제물이, 곧 아론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임의대로 제각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도 이르신 바 없었던 생똥맞은 부정한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하게 되고 이에 즉시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들 모두를 사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제[火祭, 소제(素祭, 곧 곡식헌물)를 태우는 제사의식입니다(레 02장을 참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화제가 아닌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앞선 화제로 재차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분열의 모든 원인은 마음속에 고라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에

서 스스로 획득하거나 주어진 지위와 명예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직분)에는 결단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창조된 사랑의 증거로서 사람에게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위고하(地位高下)가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지위고하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리기에 이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저리기에 저 사람을 덜 사랑하시고, 이도 저도 아닌 경우라면 그 사람은 아예 사랑에서 제쳐두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모든 것에 격(格)을 두어 그 차이를 가늠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존경, 명예, 칭송, 떠받들 등도 스스로가 창출하여 남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애쓰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를 들어 존경(사전적 의미에서 '존경'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내가 받들어 공경함'을 말합니다)은 내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곧 '받는 것'이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사전적 의미에서 '명예'는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름이나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칭송(사전적 의미에서 '칭송'은 '내가 남을 칭찬하여 일컬음'을 말합니다), 떠받들 등도 존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각양의 불미스런 교회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히 나를 남 앞에 내보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驕慢)과 탐욕(貪慾)입니다. 이 경우 교만과 탐욕의 본성은 '받아야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비유하자면 목사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마땅히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고, 장로로서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니까 마땅히 남들로부터 명예를 받아야 하고, 교회지도자

이니까 떠받듦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남들로부터 떠받듦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로보기에, 고라는 교만과 탐욕에 휩싸여 이스라엘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스스로를 앞세웠던 까닭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패악하게도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신의 지위를 교만하게 앞세우다 불에 살라지는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목사 ‘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 ‘다워야’ 합니다. 권사와 집사도 권사와 집사 ‘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사람 앞에서는 더 이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과 명예 그리고 칭송과 떠받듦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발 앞에 겸손히 그렇지만 떠받치듯 내려두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남을 존경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미련없이 쪼개어 남의 명예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것을 거리낌없이 덜어내어 남을 칭송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남에게 기꺼이 덧붙여 그를 떠받들고, 이것이 ‘다워야’ 하는 것의 실체라 생각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02:03-04)

그렇다면 수백억은 10개를 낮게 여겨 쪼개야 합니다. 담임목사는 부목사를 낮게 여겨 지극히 존경하여야 합니다. 허울뿐인 해외선교는 알찰빈 교회를 낮게 여겨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외제차는 분수와 처지를 낮게 여겨 용도를 폐기처분하여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구제현금을 낮게 여겨 청송하여야 합니다. 당회는 재정장로를 낮게 여겨 그를 떠받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위야’ 하는 것의 실제이자 저마다에 붙여진 직분(지위)의 본질일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와 집사가 권사와 집사답다면, 존경과 명예와 청송과 떠받들은 애써 힘들게 붙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캄캄한 밤에 그림자를 찾고자 그토록 목매가며 안타깝게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를 존경하였던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청송하였던 것은 교만과 탐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명예롭게 대했던 것은 항상 주위를 돌아보아 그 사랑을 함께하고자 안타깝게 애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돌아보아 떠받들었던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일을 누구보다도 쉽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그의 이름을 크리스천 된 우리 신앙의 표상이자 모범으로 여겨 여기에 존경의 눈물을 먹물삼아 꼭꼭 눌러 기억해 두고자 합니다.

길/ 만/ 영/